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공부 해서 마음을 뛰어 넘으세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가족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 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산천초목과 더불어 우주 전체가 한마음으로써 응답될 수 있는 능력이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비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어느 집에 초상이 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갔을 거야.'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을 거야. 잘 죽었어.' 하고 추궁대거든요.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가 한 철 살면서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 상대의 부딪치지 그렇지 않다면 부딪칠 리가 있나. 그러나 모두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우주법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연 조건없이 일체제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 앞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세생생에 여러의 집에 뜻을 같이 하고 우주 전체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위의 생산체가 되기 때문에 한 마음 밭을 배우는 여러분은 정진계와 물질계가 한데 합쳐서 증용으로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체 생활 속에서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무술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만들 때도 그렇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기술자가 되려면 혼을 쏙아서 포괄적인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해야만이 기술자가 되고 신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경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신경으로써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밝힐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대의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자비의 끝인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무명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두번째는 세상만사 모두 같이 돌아가는 틀 아닌 밭을 알기 위함이고,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해서 같이 사랑하면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 이치를 터득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눈 달리

뚫습니다. 시발점이 중점이요, 중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겁 전 미생물로부터 수많은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까지 진화돼서 온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내 몸통이랄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었으니 그 집합소에 마음의 씨가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발점에서는 미생물이었는데 중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을 중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속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몸속도 중점이 아닙니다. 연방 모였다가 불멸이가 한번 탁 날아서 툭 터지고 쓰러지고 또 툭 터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우주 섭리의 작용입니다. 태양도 그렇고 모든 자체가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사다가 툭 터져서 보면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알의 씨류 안에 씨앗이 많이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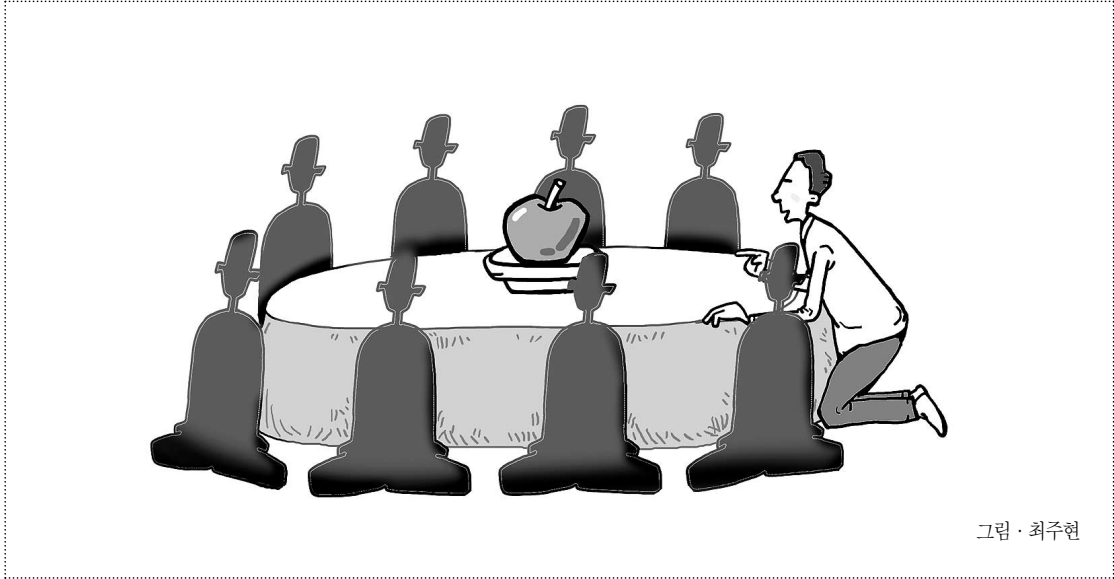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는 道도 없고,

고 도 달리고 입 달리고 구 달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몸통이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통이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 생선이 돼서 나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한데 합쳐서 서로서로 통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서 돌아가게, 빔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지만 어찌 개개의 빔방울이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이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생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 발전이 되고 진화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를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번 출했다 하면 생선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꾸자꾸 바뀌어 재현이 되고 생선이 돼서 영원히 그럴 바가 없이, 즉 태어난다 멸한다 할 것이 없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리를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주고, 여러분이 땅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섭리를 알아보고 산하대지에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러면 내 몸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산다고 이러시지만 모두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냐 하면 몸속에도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뭐가 다를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통이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실려달라고 빌면서 기복으로 돌아선다면 더욱 자기 마음은 업식에서 벗어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어항 속에서 도도 벗어나질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은 과학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의 세계, 즉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는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죽었다고, 눈물 많이 흘리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과 같이 먹는 것이니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공생 공용 공제 공치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뭐가 다를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통이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실려달라고 빌면서 기복으로 돌아선다면 더욱 자기 마음은 업식에서 벗어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어항 속에서 도도 벗어나질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은 과학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의 세계, 즉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는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죽었다고, 눈물 많이 흘리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과 같이 먹는 것이니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공생 공용 공제 공치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뭐가 다를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통이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겁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법인가 합니다. 하 어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가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신족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안방에는 뭘이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다가는 걸 다 아시죠? 마음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 온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지런 산천초목들도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주고 받는 마음으로 속삭이면서 입을 기다려주든 내년 봄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말로써 서로 통하는데 조금만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사랑이, 모 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죽었다고, 눈물 많이 흘리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과 같이 먹는 것이니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공생 공용 공제 공치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뭐가 다를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통이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의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일어셔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자식시간이나 마음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불 들어오는 전력은 똑같거든요.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실험하고 체험할 하세요.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놓고서 지켜보는 동안이 실험이요.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았을 때 체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해서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고통, 내 마음까지도 알 수 있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네니,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니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공덕과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 남이 능사지여 놓은 것을 한 손뼉 주시요 하고 얻어먹는 것이고 '공덕'은 전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빈 대를 도와주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짚는 거하고 열 손가락을 한데 합쳐서 드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지는 모릅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 즉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돌아가는 법계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는 것이 공덕이고 이 섭리를 하지도 모르고 급박해서 목마르면 '물 한 그릇 주시요.' '옷 한벌 주시요.' 하고 비는 것은 기복입니다. 빌어서 빌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을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유스런 사람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유인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놓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틀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야 만물의 영장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혼자만의 국한된 자기가 부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 남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걸림 없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어보!" 하면 남편이 되는데 어디 걸림이 있

습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걸림이 없이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해놓고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장, 관세음, 문수, 보현, 칠성, 용신, 지신, 산신, 독성, 신중 이 모두가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릇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해치는 것을 보면 그냥 털어버워서 모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입니다. 금방 자기가 신장이 된 거죠. 잘못 하는 사람을 보면 "저런 너무 잘못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내는 것이 법신입니다. 몸통이로 움직여서 확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보신이면서 화신이며, 보현이면서 화신입니다. 화신은 바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고 다 바꾼 것을 보현이라고 그러니다.

컵을 드는 과정과 물을 뜨는 과정, 그리고 물을 마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통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안통을 했다 하더라도, 천이통, 타심통, 속명통, 신족통을 했다 하더라도 했던 말을 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남의 속을 잘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온다 하더라도 이걸 도가 아니라 하신 겁니다. 컵을 들고 물을 뜨다 하더라도, 물을 떠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하신 겁니다. 물을 떠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심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무효고 보이지 않는 데 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

29면에서 계속

예요. 남의 속을 다 알고 과거에 어디서 살다 온 거를 알아도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내가 먹고 쓸 수 없다면 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데 물을 떠서 줄 수 없고 떠서 먹을 수 없다면 도가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목이 마른데 물을 뜨려고 컵을 들고 물을 떠다 해도 먹을 줄 모른다면 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갑증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먹지 못하면 갑증을 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지 못하고 자기도 먹지 못하니 이걸 무효입니다.

모두들 그저 어떡하든지 돈 벌어서 살 궁리만 하시는데... 그럼 먹고살아야지 않습니까 이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입을 빌려서 심부름해줄 뿐이지.'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입사생들이 시험 볼 때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한' 하면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한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공을 믿고 '심부름을 하려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거기 맡이라고 하십시오. 자기 마음의 싸는 보이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 마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푸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알고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자로 믿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 나무와 뿌리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은 된다더라 이라고는 '주인공! 되게 해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주시오.' 한다던 그것도 기록이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닌니까,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저는 그만입니다. 한 부분만 고장이 나서 파위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기라고 내세를 게 있습니까. 아니, 건강공장에서만 파위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뭘 자기라고 그럴 게 있느냐구요. 건강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공장에서고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파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업식 속에서 파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모든 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고로 받으니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립' 하는 거는 '부처님' 하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구성된, 형성된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든 일이 전체돼서 돌아가거나 사람이 변해서 중추가 되거나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자식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의합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마음을 잡아야 육체도 잡어지는 법입니다.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니다. 도를 구하는 건 마음으로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고 또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고 해서 말을 막하고 악을 쓰고 신경질을 내고 속을 북북 긁고, 또는 자식들이 나가서 만악에 자기 들어온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하더라도 너 '이놈의 자식,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말했다고 해서 도로 뛰쳐나가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맡겨 놓고 스스로 '모든 게 내 뜻이로 다. 내가 인연을 맺었고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부딪침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나쁘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을 해주면서 미움 갖지 말고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자식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훌륭한 효자 효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생활 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공생 공용 공재 공식화 하고 더불어 마음이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지만 자기 몸속에 들은 자생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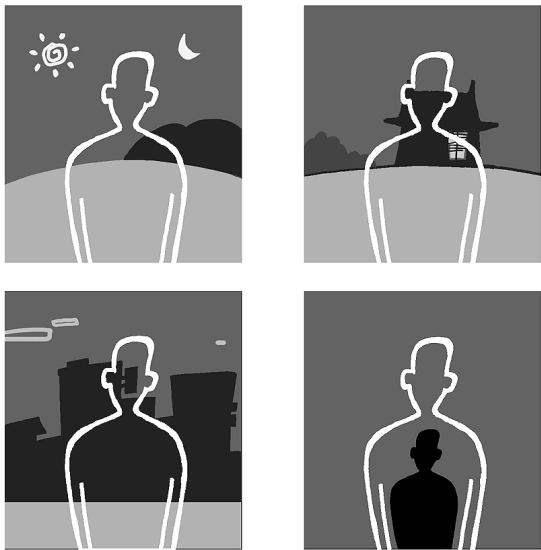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생활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와 중생은 같이 있습니다. 이만 하고 질문하십시오.

▲ 질문자: 스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믿고 놓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저희는 사회의 온갖 경쟁 속에서 분 초를 다룰 때가 많습니디. 예를 들어 경쟁 입찰이나 공매 등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내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자리아타의 행위에 어긋날 수도 있으며, 주인공에 믿고 놓아 욕심을 내지 않자니 사회활동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수행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활동을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놓으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욕심도 부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놓겠습니까 하는 소리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만 두고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속의 생명들을 끌어낸 겁니다. 보세요 혼자 한 겁니까? 돈을 버는 것도 그 생명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게 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이게 하는 것도 그 자리아타 어떻게 자기 혼자 한 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묵서처럼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힘이 없이 하라. 네가 한 게 아니라 진자 네가 한 거니라. 개별적인 내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내가 한 거다 이 소입니다. 혼자 먹고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나는 심부름만 해준다 한다면 아주 약의적으로 사기질 하지 않을 것이요, 또는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규모 있게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주인공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물론 모금 마셔도 혼자 마시는 게 어딴습니까. 내가 먹어서 퐁퐁하고 오줌 누면 다들 먹고 또 내놓으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먹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나오면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 질문자: 저는 부산에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무장을 좀 해서 스님께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아무미해했다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무신론자로서 질문 오늘 처음 와봅니다. 스님을 보고도 앞에서는 '스님' 했고 돌아서서는 '중'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선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시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느낀 게 회장으로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몸으로 실천합니다. 불쌍한 애를 데려다 키우는 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쪽 쪽에 다녔는데 집을 자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우리 집, 우리 집이더라구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종교의 의의가 뭐냐. 종교라는 거는 정치 가고 교육자고 구제 못하는 마지막 커버할 영역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종교적인 회의가 왔습니다. 저는 합장하는 법도 잘 몰랐고 사월 초파일 애들 따라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고는 했는데 사실 들어가서 절도 한번 못 봐요.

저는 언론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디. 저는 안 믿습니디. 완벽주의자입니다. 종교인도 완벽해야 되고 더욱이 스님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디. 세속에 사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인정해 줘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나갔었는데 찬송가는 따라서 불렀지만 열불 같은 것은 굉장히 저항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그랬습니디. 저는 성불한다 뭐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밀쳐 보아야 본전 아닙니까. 순해 보는 거 없거든요. 가산 전부 다 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나 학교나 사회교육에서 폐기된 부분이 여기와 보니까 좋더라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깐요. 제가 다른 사람 구제는 못해도 혼자 스스로 나쁜 것은 하지 않을 것 아냐. 관광도 가는데 이왕이면 공기 좋은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고 감동을 느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법회 참석의 의의는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디. 이것이 널리 전국에 구석구석 도독질해먹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성불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하지만 단, 내가 우리 이웃을 보니까 그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서 저 정도만 되면 된다 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욕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는데 마침 제가 앉은 좌석이 제일 뒷칸이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디. 그래 집사람한테 '나만 가라. 나 내릴란다.' 하고 신경질을 냈습니디. 사실은 터미널이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다른 차 타고 내려가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교는 하나 갖긴 가져야 되겠는데 갈 때부터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겁디. 그래서 차라리 가톨릭이나 한번 믿어볼까 하니까 똥가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구예.

▲ 스님: 차에서 안 내리신 게 다행입니다. 믿천은 뻐오니까요. 아주 험두침명하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예누리가 조금도 없어요. 자기가 잘라오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다가오는 그 자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 번 잘 쓰면은 구멍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구멍이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하여튼 잘 오셨습니디.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할 것은 진자로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마음공부를 하세요. 이 마음은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아신다면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가정 빼놓고 내 몸 빼놓고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병고 없고 애고가 없어야만 나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한다고 집을 비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 우리 가정 빼놓고 종교가 어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데 좀더 너그럽고 애고가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기호를 발제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연액 열식법
 동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연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평당음만들어주면 몸이 바뀝니다. 평당음특이법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뱃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체중은 운으로 변화된
 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왜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이강욱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뱃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입니다 **평당음(051)865-9933**
 전도제 49번의 결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평당음(051)865-9933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황당여리 복당여리 왕당여리 왕기만인 복이들어와 왕당운으로 변합니다.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돌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상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된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매병 및 기억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염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폐식용유에 마가목 열매를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왕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신 입장